

EUNSEOK CHURCH MATHETES

절정의 인생

신윤식

뒤돌아보면
벌써 이만큼 왔나
아쉬움과 탄식을 끌어내는
애잔한 세월의 강

허허로운 들판에
목이 썩인 채
צלצל히 바람 맞으며
서 있는 허수아비

헛헛한 마음으로
허망한 기대 품고
비틀거리며 걷는
인생이 보이는데
허전한 그 속은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오늘은
절극 서게 될
저 끝자락에 앉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텅 빈 생을 내다보며

시간이 맺은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리는
그 분을 만나는
절정의 인생을 꿈꾼다.

제24권

39

2016.9.25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사55:8)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하문곡 골짜기

겔 39:11-16

우리가 인생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산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타인보다 더 우월하고 폼 나는 삶을 살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욕망에만 붙들려 살면서 종국에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미련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전국이 지진으로 인해 불안해 하지만 지진의 진원지인 경주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여진이 400회 이상이 되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안이 일상이 된 경주 사람들 가운데는 “두 발 뺀고 잠을 자고, 아이와 웃으며 밥 먹고 이야기 하는 등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자신하고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땅에 속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가 성령의 오심으로 있게 되는 것이고 신자는 성령의 지혜로 인생을 바르게 판단하면서 잠시

잠깐의 지랑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됨이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고후 4: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잠깐입니다. 그것이 부요든 비천이든 잠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랑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부요든 비천이든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신자는 발 딛고 있는 땅이 흔들려도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우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길은 신자의 우월성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왜 미련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

늘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곡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땅을 침범한 것에 대한 보응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내용이 현재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난감해지게 됩니다. 불신자가 신자를 괴롭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라”** 고 말합니다.

곡과 그 무리들의 무기를 일곱 해 동안 불태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침범한 무리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음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다 할지라도 이미 3절에서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무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되어 불태워질 뿐입니다.

여기서 무기를 일곱 해 동안 불태웠다는 것은 실제로 7년 동안 무기를 불 태웠다는 것보다는 일곱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곡과 그 무리를 이기고 무기를 일곱 해 동안 불태웠다

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곱이라는 수가 인간의 힘과 열심히 개입되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완전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죽인 사람들이 일곱 달 동안 매장할 정도로 많았다는 것 역시 실제로 일곱 달에 걸쳐서 시체를 매장했다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면 이 같은 일들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거나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다면 믿음의 권위와 함께 신자의 위상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처럼 핍박하는 사람을 신자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 죽게 하시거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있게 하시거나, 하는 일을 실패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신자를 핍박하는 것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면 신자를 함부로 조롱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목사들 가운데는 그럼 말로 교인을 헐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종인 목사를 반대하거나 목사가 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해서 병에 걸려 죽거나 사업이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성경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공통성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곡과 그 무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요’라는 결론에만 머문다면 성경을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단편적으로만 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동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곡을 위하여하신 일은 매장지를 주신 것입니다. 매장지는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던 골짜기인데 바다 사람이 동행을 했다면 이는 무역을 위한 통로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아주 넓은 골짜기로 생각되는데 그 골짜기의 길이 막힐 정도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대군이였는가를 알게 합니다. 이처럼 곡과 그 무리들이 매장된 곳을 ‘하몬곡 골짜기’로 일컫게 하십니다. ‘무리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곡과 그 무리들을 어떻게 다르게 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곡과 그 무리를 치고 크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또한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과 같은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전면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를 때 승리하고 바르지 않을 때 심판받는 것으로 확

실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를 때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본문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으로 고쳐졌기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바르면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징계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알미니안적 사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함에 초점과 기준을 둔 비복음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곡과 그 무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매장지로 주신 하몬곡 골짜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몬곡 골짜기는 말 그대로 사신을 매장하는 매장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죽음의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입니다.

반면에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두신 일을 아실 것입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 역시 표면적으로는 공포스러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에스겔이 본 골짜기나 하몬곡의 골짜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살아났고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생명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자신들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밟았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고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처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며 낙심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라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겔 37:14)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문곡의 골짜기에 매장된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곡과 그 무리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한 것은 이스라엘을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자신들이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힘으로 여긴 무기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군대 역시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죽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죽은 자인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의 다른 점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의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죽게 된 자를 매장하여 땅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14절에서도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는 말씀으로 언급되고 있고, 16절에서도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

을 정결하게 하리라” 는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죽은 자를 매장하는 것은 단지 적군을 불쌍히 여겨 그 시신을 매장해주는 도의적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정결, 즉 거룩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땅의 특징은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자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은 그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자신의 힘과 방법과 열심을 동원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속성을 드러낸다면 약속의 땅은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땅을 더럽힌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겔 36:17절에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곡과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을 자기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바라본 것처럼 그 땅 역시 얼마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것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매장하게 함으로 땅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역시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이것을 골짜기의 마른 뼈로 보

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죽어야 할 인간을 살리신다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완성 안에 있는 신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서는 죽은 자인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나올 뿐이지 자신의 힘으로 행한 그 어떤 일도 내 놓지 않게 됩니다. 아예 자신이 행한 일이라고는 죄 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게 된 예수 안이라는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은 신자를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만 바라봅니다. 똑같이 생존을 위해 일하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신비하고 놀라운 섭리에 붙들려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사자조차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동일한 시각과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함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은 은혜의 땅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역시 은혜를 알지 못한 죽은 자였을 뿐이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사건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 붙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형편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붙들어 놓기 위해 일하십니다. 때문에 신자는 우리가 담고 사는 땅이 흔들리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믿음과 권위

살전 2:7-8

믿음 80강 8. 28일 설교

현대의 기독교 세계에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교회 내에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다스릴 정당한 권위를 부여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목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때로 권위는 권력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위와 권력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권위는 누군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이라면 권력은 자신의 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따라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는 권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를 복 주고 벌도 줄 수 있는 신적 권

위가 두려워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 복종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을 위해 힘이 굴복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세우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두려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보다 힘센 권력에 복종하는 세상 속성과 다르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위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서만 가능한 참된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권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조상 때부터 내려온 권한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마 21:23) 라고 시비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는 자

신들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신분, 장로라는 신분을 가진 자만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죄인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죄가 용서되는 은혜를 배우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자신들을 우월한 존재로 높이는 도구로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직을 거룩한 직으로 구별하여 높이고 일반 교인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음을 부각하며 힘을 가진 권한으로 내세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권위는 사라지고 목사의 권위에 장악된 종교 단체의 모습으로 전락된 모습으로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만 있을 뿐 우월한 자는 존재할 수 없음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에게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사도로서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권위를 목사의 권위로 말하기도 하지만 사도와 목사는 분명 다릅니다. 만약 사도가 오늘날 목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사도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사도운동가들이 사도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도가 행했던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자구적으로 해석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사도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사도가 행한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 사도 바울이 행한 죽을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사도의 권위는 사도인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복음은 사도가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사람이 제멋대로 수정하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 역시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첨하는 말이나 자신을 위한 탐심으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살전 2:5).

바울이 말한 사도의 권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권위로 역사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으니까 나를 대접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는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접 받고자 했다면 기적을 행했을 때 그 기적으로 자신으로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누구도 기적을 자신의 권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행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 서부터 걸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표적을 보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칭합니다. 표적을 보임으로 신으로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께 특별한 권능을 받아 행한 것처럼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리칩니다. 자신들이 권위자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고 권위자로 여기고 대접하는 것 또한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의 권위를 말할까요?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사도됨은 아첨과 타협과 자기 탐심을 떠나서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온전히 복음만 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복음만 전했으니 대접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사도됨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증거 될 뿐이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사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의 권위는 세상적 조건과 기준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목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책이 권위가 있어서 누구든 목사가 되면 교회를 다스릴 권위가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목사의 권위는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에게만 허락된 일이 있습니다. 세례를 행하는 것이나 축도하는 일 그 외 행정과 관계된 여러 일들이 목사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법에 의한 것이지 성경이 그러한 일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목사의 권위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권위가 아니라 역할

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여 드러낸다면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즉 거짓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권위는 말씀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신자는 말씀만 전하는 사도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탐심으로 살아가는 세대에서 온전히 말씀만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인해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도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권위가 있지만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온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로 향해있

었고 그 마음은 사랑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사랑은 이처럼 자신을 위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의 유익을 위해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자신을 내어 놓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권위는 타인을 지배하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위는 오히려 자신에게 권위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권위가 되어 우리를 다스린다면 모두가 우월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붙들린 자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총을 내어 놓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결론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권위를 주장하는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를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주장한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어 놓은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저주 속의 축복

창 49:1-7

117강 2016. 9. 21일 설교

28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 말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28절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조상이 될 아들들을 각기 분량대로 축복한 것으로 말합니다. 열 두 아들에 대한 야

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도무지 축복을 한 것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7절을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르다”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본문은 야곱이 앞서 말한 세 아들에 대한 저주 선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열두 아들 중에 세 아들은 저주를 선포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축복을 선포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절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즉 야곱의 열두 아들 모두에게 축복한 것으로 말합니다. 이처럼 앞뒤가 일치하지 않은 서로 모순적인 것 같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본문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우벤, 시므온, 레위는 왜 저주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브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로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3절의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로서 야곱의 능력이었고 기력의 시작이며 위용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자로서 믿음직한 풍모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브우벤에 대해서 다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4절)라고 말합니다.

브우벤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여종이며 야곱의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은 발하와 동침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야곱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하며 그 행위를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욕보인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겔과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겔에게 강간을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나를 욕보인 세겔이 디나에게 연인하여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물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하물이 야곱에게 말하기 위해 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디나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는 조건을 세웁니다.

결국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성음을 기습하여 하물과 세겔을 포함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까지 사로잡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열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다”** (6절)라고 말합니다.

브우벤, 시므온, 레위의 행위를 생각하면 분명 축복보다는 저주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을 축복한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절에서 열 두 지파를 축복한 것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주한다고 말했고 저주가 분명한 데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난감함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축복은 세상에서 잘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축복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이라면 축복의 세계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잘된다 해도 격차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세계에서 축복을 많이 받은 자와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자를 비교하며 차별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러

한 축복의 세계는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유다를 가리켜서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고 말합니다. 모든 형제들로부터 찬송 받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뜻인데, 이것만 봐도 아람이 말한 축복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람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로소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추구했던 세상에서의 성공은 축복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람의 축복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축복에 대해서 기존의 아람처럼 고정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람이 추구했던 축복을 우리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저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브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그들의 행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을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결국 행위를 기준 한다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살아도 못살아도 저주가 당연한 것이 인간이 처한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브우벤, 시므온, 레위는 저주를 받아야 하고 다른 아들들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람이 다른 아들들에게 단지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축복의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죽은 자라는 뜻이고 축복을 받는 것은 산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축복은 저주에 속한 자가 사는 것을 뜻

합니다. 즉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에서 드러납니다.

유다와 요셉의 축복은 메시아의 오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저주에 속한 자에 지나지 않은 브우벤, 시므온, 레위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메시아 덕분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오심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자신이 저주에 속했음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저주의 선포는 저주 받을 자로 선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의 본질을 보게 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저주를 붙으로써 생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진정한 하늘의 복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 6: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출하여 구원에 속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해도 '이 보다 좋은 것' 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주라는 죽음의 현실에서 과연 좋은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죽음 아래 있는 죄인이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고 생명에 속한 자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주셨습니다.

교회소식

1. 9월 26일 19시부터 재건부평교회 당에서 98회 총회가 개최됩니다.
2. 노요한 목사께서 본인의 신앙간증서인 '주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의 책을 보내 오셨습니다. 필요한 분은 한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 24일에 고 박재준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4. 29일(목)에 동부노회 권사회 야외회가 있습니다.



수크령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 일 오 전	11:00
주 일 오 후	2:30
수 요 일	7:30
주 일 학 교	1:00

주일오전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독상기도 다 할 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19장
 교 독 문 36(시90편)
 기 도 조규현 장로
 찬 송 395장
 성경봉독 겔 39:11-16

● 하문곡 골짜기(95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76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7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이성희 장로

주일오후예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182장
 기 도 오정희 집사
 찬 송 339장
 성경봉독 마 7:21-23

● 위험한 믿음(믿음83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549장
 주기도문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이인혁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창세기 강해 118강